금시조 날아오르니, 종소리 은은하네

서산 부석사 범종불사 천일기도 회향 · 타종법회 봉행… 새 모양 종두 '첫 선'

1300년 고찰 서산 부석사에서 1000일 동안의 범종불사를 마치고 중생의 무명을 깨우는 범종이 첫 타종됐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8월 30일 범종불사 1000일기도 회향과 함께 타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남해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를 비롯해 유상곤 서산시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설정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행사는 육법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범종조성 축사, 법어, 범종조성 발원문, 타종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설정 스님은 법어에서 "범종 조성은 일체중생의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의 눈,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하고 안락과 행복의 인연을 주는 의미가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부석사 불사가 원력을 세워 이뤄놓은 것이기에 지금에 이르게 됐다. 앞으로도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석사 신도와 절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원력으로 금시조(金翅鳥)범종불사를 하게 된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며 "금시조종이 21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예술작품으로서 새로운 양식개척과 새로운 중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8월 30일 서산 부석사 1000일 범종불사기도 회향식에서 주지 주경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유상곤 서산 시장은 축사에서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만공대선사들이 머물며 선풍을 떨치는 등 서산을 대표하는 역사적 고찰인 부석사에 범종이 조성된 것을 16만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범종의 맑고 깨끗한 소리가 서산 시민의 번뇌와 업장소멸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조성된 금시조 종은 전통 쇠북형태에서 한 마리 소리치는 새의 형태로 종의 형상과 의미를 전환시켰다. 주경 스님은 도학회 교수(한서대)에게 불교에서 용을 잡아 먹고 사는 새로 그려지는 금시조를 형상화 해달라며 '이전과는 다른 종'을 요청했다. 도 교수는 이에 신라종의 종두에 있는 용의 머리를 대신해 용의 형태적 특성을 일부 가미한 금시조 머리의 종두를 만들었다. 또 보통 대나무 모양의 음통 대신 여의주에 음통의 소리조절기능을 넣는 등 독특한 디자인의 종을 디자인했다.

금시조 종을 주조한 원광식 성종사 대표(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는 "도학회 교수가 제시한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이라 약간의 거부감과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제작단계에 이르자 새로운 시도에 대한 흥분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신라 의상 스님과 선묘낭자의 애절한 창건설화를 간직한 부석사는 1300년 된 고찰이다. 조선초기 무학대사가 중창하고 한국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이 승속의 제자들에게 불법을 전한 역사적 사찰이었으나 일제의 침탈과 한국전쟁 등으로 많은 토지와 성보들을 잃고 점점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1999년 주경 스님이 취임한 후 산신각과 주지실을 신축한 후 수행선원, 템플스테이 전용관, 전통찻집, 사자문, 사찰 내 문화재 보수공사, 후원 겸 강당, 요사채 복원공사, 불상입상 조성, 석탑 등 중창불사에 힘을 쏟고 있다. 또 2003년부터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일반 재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산사음악회, 한문학당, 영어교실, 부처님오신날 어르신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호법불교 발전에 계기 되길"

대구 관음사, 포항에 분원 개원

대구 관음사(회주 우학)는 9월 21일 경산, 칠곡, 구미, 중국 청도도량에 이은 9번째 분원을 경북 포항시에 개원한다.

포항도량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학산빌딩 6층에 위치해 있으며 661.16㎡(약 200여 평)의 규모로 불단과 법당, 종무소, 서점, 공양간 등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학 스님은 직접 강의하는 불교기초교리반을 모집해 포항도량에 10월 7일 오전 · 오후반을 개강한다.

관음사 포항도량은 우학 스님의 천개 분원 건립 불사의 일환으로 지어진 것으로 재가불자들이 손쉽게 사찰을 찾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

우학 스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포교당이 개설 되지만 부처님의 가피와 많은 이들의 인연, 도움으로 많은 행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호법불교발전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10년에는 서울, 광주, 뉴욕 등 천개분원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음사는 제6기 단기출가학교 입교생을 모집한다.

50세 미만의 독신남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계식 및 삭발식을 시작으로 15일 동안 참선, 감포도량 무문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에게는 회주 우학 스님의 유발상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학 스님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주는 기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더 나은 질의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단기출가학교는 10월 5~19일 보름간 운영되며 선착순 모집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053)474-8228

이나은 기자

문무왕릉비편 재발견

국립경주博, 200년 만에 상단 확인

682년 경주 사천왕사에 세워졌던 신라 문무왕릉비편이 200여 년 만에 재발견됐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경주시 동부동 주택내에서 신라 제30대 문무왕릉비편을 확인했다고 9월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무왕릉비편은 그동안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문무왕릉비의 상단부분으로 1796년(정조 20년) 비편들이 발견된 이래 200여 년 만의 발견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공개한 문무왕릉비편 상단부.

비편은 발견당시 주택 내 수돗가 마당에 시멘트로 박혀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 측은 "비편이 장기간 노출에 의해 표면이 훼손되고 가장자리 부분 등의 일부는 마모가 심한 상태이나, 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이번 비편 상단의 발견으로 청나라 금석학자 유희해(1793~1853)가 1796년 발견된 비편의 내용을 실은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일부 글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비석의 하단 부분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돼 '사천왕사' 특별전에 전시중이다. **조동섭 기자**

160 선인 나툰 미륵세계 펼쳐져

보은 법주사, 진영각서 '벽화전' 개막

보은 법주사에 80폭 160선인들로 가득한 미륵세계가 펼쳐졌다.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8월 27일 경내 진영각에서 '신비로운 도솔천인 벽화전 미륵세계 비천상 벽화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비천상 벽화는 법주사 용화전 천정에 장엄될 180재로 원광대 김범수 박사가 1년 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한 대작이다.

김 박사는 작품을 위해 돈황석굴 및 중앙아시아의 벽화에 그려진 비천상 및 주악도 등을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인체의 비례에 맞는 밑그림으로 활용됐다.

노현 스님은 "김범수 박사가 지난 1년간 작품에 쏟은 정성은 한이 없다"며 "세계적 수준의 불모와 화원들이 이루어 낸 장엄한 불사 회향의 자리를 불보살님들이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박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비천상은 동양문화권의 비천상 형식을 수집하고 이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표현해 낸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석채로 제작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수 박사는 일본 경도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주임교수 및 문화재보존수복연구소장과 범해회화문화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문화재 안전견 배치

목조문화재 화재 감시

목조문화재의 화재 감시를 위해 '문화재 안전견'이 배치된다.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천안 성불사 등 도내 목조문화재에 문화재 안전견 10마리를 배치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문화재 안전견이 배치되는 시설은 천안시 성불사를 비롯해 연기 비암사, 부여 고란사 등 전통사찰 등 10여 곳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목조문화재에 인력을 배치했을 때 연간 90억원 가까이 들지만, 개를 배치하면 9억 3000만원에 불과해 소요비용이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문화재 안전견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문화재로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미타삼존불 봉불

단양 광덕사, 13~14일

단양 광덕사(회주 혜인)는 9월 13~14일 100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을 봉행한다.

행사는 13일 오후 5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삼귀오계 수계식, 국제고승 법문, 선지식 초청법문, 수덕사 정혜선원 입승 현전 스님을 비롯한 선방 수좌스님들이 대중들과 함께 하는 철야용맹정진이 이어진다.

14일에는 오전 4시 새벽 예불에 이어 법문 · 천도의식, 점안불공, 점안식, 봉불식이 봉행된다.

광덕사 측은 "13일 심야의 선지식 초청법문에는 고산 · 혜정 · 보성 · 정관 · 등각 · 종진 스님 등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중국 및 일본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덕사는 행사에 참여할 불자들을 위해 13~14일 양일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교통편을 준비했다. (043)421-4700

혜철 충청지사장

장학금 전달

대구 대성사 9명에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이 불자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도산)는 9월 1일 불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불자학생은 대구전자공고생 3년 손정훈 학생 외 9명으로, 총 500만원의 대성사 보리봉사회 장학금이 수여됐다.

도산 스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전수교육 수료자 체험사례

18세때 무술에 입문하여 사범, 관장시절 저의 무술도장에서 회원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대체의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뼈접골, 침술, 지압, 기공, 최면술, 카이로프락틱 등 각종 단체로부터 또는 개인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에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옥살이도 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금은 조국이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시간이 흘러 미국을 떠나 이민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원주민을 상대로 기 치료를 하면서 가끔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차 지난 8월 12일 기내에서 모 일간지를 통해 원장님의 특강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웬지 느낌이 와 닿아 전화 접수후 바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속는 셈치고 휴식도 취할겸 해서 참석했는데, 막상 교육을 접하고 보니 정말 기적같은 현실이 일어나더군요.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능력과 투지, 그리고 인자한 성품, 열정적인 연구자의 모습까지 정말 감동했습니다. 원장님의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창원에서 기 치료사 박○○○ (10기수료)

국민일보 5월 14일 자 13면 하단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최고수 활인비법전수 안내라는 광고문을 보았다. 그동안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경침과 봉침에 대하여 교육도 받았고 관심이 많은 터라 자세히 광고문을 읽는 중에 정골정체, 정혈청혈, 통경활락이라는 삼정요법과 비법전수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박6일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나서 보니 여기와보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뻔 했다. 침술비법은 물론 교정법, 터주기등 임상실험과 함께 이명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듣게 되고 20년동안 다리가 저려서 유명한 병, 한의원을 다 다녀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가 2회의 시술로 뛰는 것을 보게 되고, 후두통이 즉시 사라지고 요통으로 고생하던 교육생이 완치가 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놀랍고 대단한 세계 최강, 최고수임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의학의 도인이고 인술의 대가이시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또 와야겠다.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김○○ 목사 (3기 수료)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싹 가시고 낫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십수년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인 끝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침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낫게 하고 정골정체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십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신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번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승려 ○○ (3기 수료)

◆三正요법 [Triple Combination Therapy]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活人氣功)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면역침술

▸ 교육장소 : 강화 한빛건강修練院 (전등사인접)
▸ 교육기간 : 9월 11일 ~ 9월 13일 2박 3일
9월 25일 ~ 9월 27일 2박 3일
▸ 교육안내 : 032)937-2808, 7182
▸ 전수비용 : 기초과정 / 고급과정 / 연구과정 100만원

▸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 弟者구함 :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합니다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 (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 ~ 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 ~ 10회의 시술로 90% 이상 치유됩니다.

외과적영역 수술날짜받은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강직성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결림, 오십견, 테니스.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퇴행성 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 ~ 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교육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 (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 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승려, 목회자,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